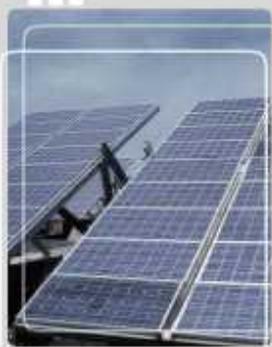


2013년 하반기 지역별 수출입 전망과 시장여건



C O N T E N T

S

목 차

요 약 / 1

I. 개요 / 2

II. 2013년 하반기 지역별 수출여건 / 8

8	1. 중국권
13	2. 아시아/대양주
18	3. 유럽
20	4. 북미
24	5. 일본
27	6. 중동
29	7. 중남미
30	8. 아프리카
31	9. CIS

III. 2013년 하반기 지역별 수입여건 / 32

32	1. 중국권
33	2. 아시아/대양주
34	3. 유럽
34	4. 북미
35	5. 일본
35	6. 중동
36	7. 중남미
36	8. 아프리카
36	9. CIS

요 약

□ (전체) '13년 하반기 수출은 전년대비 4.0% 증가한 2,836억 달러, 수입은 2.9% 증가한 2,629억 달러 전망

- '13년 연간 수출은 2.3% 증가한 5,603억 달러, 수입은 0.1% 증가한 5,200억 달러 예상

< 수출입 추이 및 전망 >

(단위 : 억 달러, %)

구분	2012년			2013년		
	상반기	하반기	연간	상반기	하반기	연간
수출	2,750	2,729	5,479	2,767(0.6)	2,836(4.0)	5,603(2.3)
수입	2,641	2,554	5,195	2,571(△2.6)	2,629(2.9)	5,200(0.1)
수지	109	174	284	196	207	403
무역규모	5,390	5,283	10,674	5,338(△1.0)	5,465(3.4)	10,803(1.2)

주 :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, 2013년 상반기 추정치, 2013년은 전망치
 자료 : KOTRA 해외무역관(바이어, 주재상사 등 767개 정보원 의견 종합)

□ (수출) 지역 및 품목별 수출 전망

- 지역별 하반기 수출
 - 증가(%) : 중국권(9.5), 아시아(7.0), 북미(5.2), 대양주(3.2), CIS(0.5)
 - 감소(%) : 일본(△11.0), 중동(△3.5), 아프리카(△3.5), 중남미(△1.8), 유럽(△0.1)
- 하반기 품목별 수출
 - 상반기에 이어 무선통신, 반도체 등 IT 제품과 자동차부품 등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 지속할 것으로 예상
 - 자동차 수출도 상반기 대비 양호하고 선박도 기저효과로 감소폭 축소가 기대되나, 기계, 철강, 섬유 등은 부진 지속 전망

□ (수입) 수출 증가로 수입도 증가세로 전환 기대

- '12년 하반기 4% 감소한 기저효과와 유럽, 중국 등 주요국의 수입수요 확대 예상

I. 개요

□ (전체) '13년 하반기 수출은 전년대비 4.0% 증가한 2,836억 달러, 수입은 2.9% 증가한 2,629억 달러 전망

- '13년 연간 수출은 2.3% 증가한 5,603억 달러, 수입은 0.1% 증가한 5,200억 달러 예상
-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수출입은 '12년 동기 기저효과(수출 $\Delta 3.0\%$, 수입 $\Delta 4.0\%$)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
- * 반기별 수출증가율('12 → '13, %) : 상반기) 0.5 → 0.6, 하반기) $\Delta 3.1 \rightarrow 4.0$
- * 반기별 수입증가율('12 → '13, %) : 상반기) 2.3 → $\Delta 2.6$, 하반기) $\Delta 4.0 \rightarrow 2.9$

< 우리나라 수출입 추이 및 2013년 하반기 전망 >

(단위 : 억 달러, %)

구분	2011년	2012년	2013년		
			상반기	하반기	연간
수출	5,552(19.0)	5,479($\Delta 1.3$)	2,767(0.6)	2,836(4.0)	5,603(2.3)
수입	5,244(23.3)	5,196($\Delta 0.9$)	2,571($\Delta 2.6$)	2,629(2.9)	5,200(0.1)

주 :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, 2012년 추정치, 2013년은 전망치

자료 : KOTRA 해외무역관(바이어, 주재상사 등 767개 정보원 의견 종합)

□ (지역별 수출) 중국권, 아시아 수출호조 vs. 일본, 중남미, 중동 등 부진

- 상반기에 이어 중국권(9.5%), 아시아(7.0%) 지역 수출이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
- 북미(5.2%), 대양주(3.2%)는 양호하겠으나, CIS(0.5%)는 상반기 대비 증가세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
- 일본($\Delta 11.0\%$), 중동($\Delta 3.5\%$), 아프리카($\Delta 3.5\%$), 중남미($\Delta 1.8\%$), 유럽($\Delta 0.1\%$) 등은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
- 일본은 엔저에 따른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부진 지속이 우려되나, 유럽은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폭 축소 기대

< 2013년 지역별 수출 전망 >

(단위 : 억달러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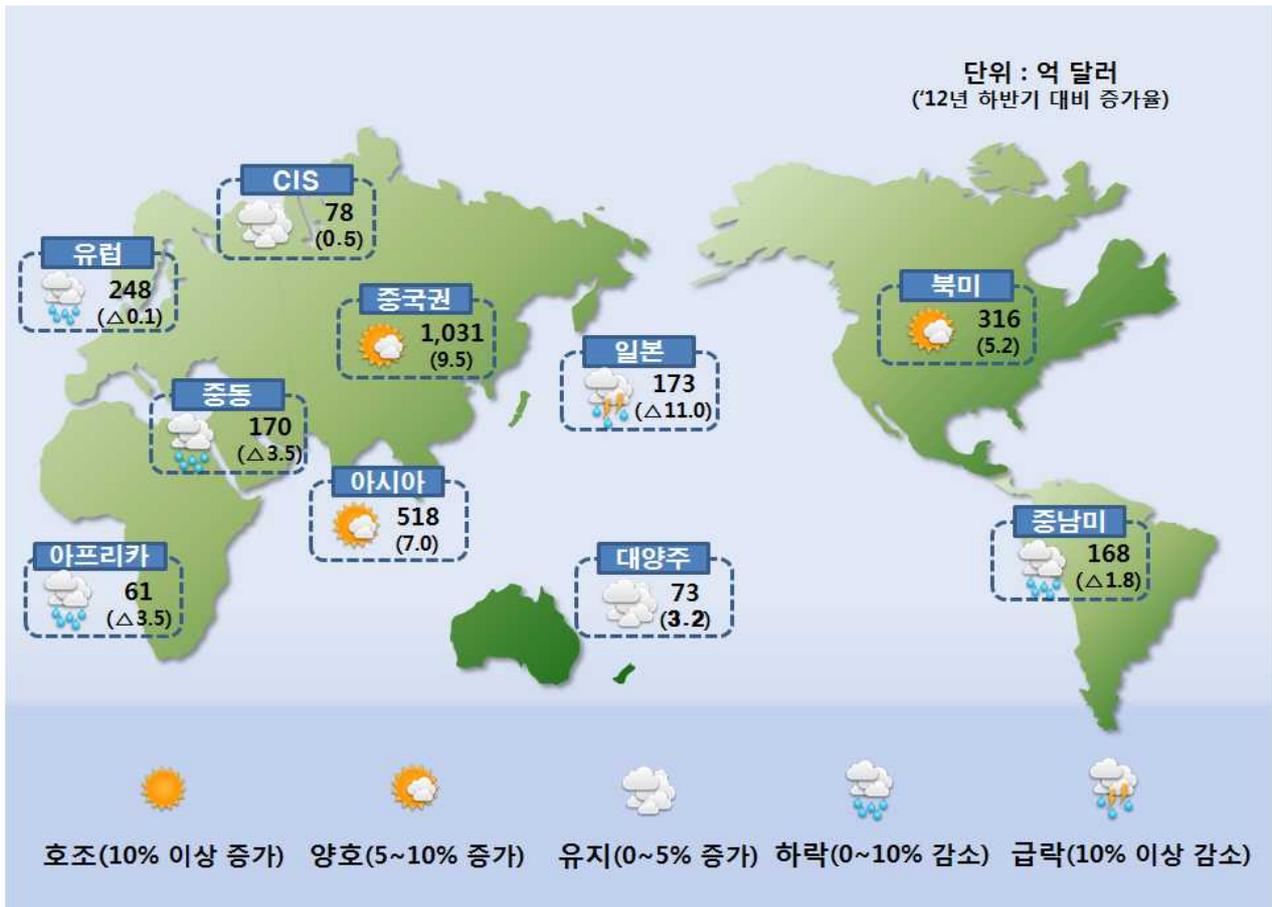
지역	2012년				2013년						
	상반기	하반기	연간		상반기		하반기		연간		
		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비중
총계	2,750	2,727	5,477	△1.3	2,767	0.6	2,836	4.0	5,603	2.3	100
중국권	875	942	1,816	△0.9	913	4.4	1,031	9.5	1,944	7.0	34.7
아시아	459	484	943	7.5	494	7.6	518	7.0	1,012	7.3	18.1
대양주	83	71	154	△9.8	82	△1.0	73	3.2	155	1.0	2.8
유럽	265	248	513	△12.0	256	△3.4	248	△0.1	504	△1.8	9.0
북미	333	300	634	3.6	340	2.0	316	5.2	656	3.5	11.7
일본	194	194	388	△2.2	171	△11.6	173	△11.0	344	△11.3	6.1
중동	185	176	361	5.3	172	△7.2	170	△3.5	342	△5.4	6.1
중남미	196	171	367	△8.7	190	△3.2	168	△1.8	358	△2.6	6.4
아프리카	80	63	142	△21.5	72	△9.7	61	△3.5	132	△7.0	2.4
CIS	80	78	158	7.8	78	△3.0	78	0.5	156	△1.3	2.8

주1)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, 2013년 하반기 추정치, 2013년은 전망

주2) 아시아 지역(동남아 + 서남아), 아프리카(북아프리카 + 사하라이남)

자료 : KOTRA 해외무역관(바이어, 주재상사 등 767개 정보원 의견 종합)

< 2013년 하반기 지역별 수출 기상도 >



□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

- ▶ 반도체,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 IT품목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자동차와 선박 수출도 상반기보다는 개선 될 것으로 기대
- ▶ 하지만 세계경제 저성장 추세와 글로벌 수요 회복지연으로 철강, 기계류, 컴퓨터 등은 수출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

- (자동차 및 부품) 상반기 부진했던 자동차 수출은 하반기부터 차츰 증가하고, 부품 수출도 양호한 분위기 지속 예상
 - 자동차는 FTA, 브랜드 이미지 향상으로 선진국 수요는 증가가 예상되나 신흥시장은 현지공장설립, 수입규제 등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
 - * '13년 1~5월 자동차 수출은 미국(9.6%↑), EU(12.0%↑) 등 선전하고 있으나, 중국(15.4%↓), 브라질(57.9%↓), 요르단(26.0%↓) 등은 하락세
 - * 중국, 브라질은 현지공장 가동으로 완성차 수출은 줄고 있으나, 자동차 부품 수출은 양호
 - * '13년 1~5월 차부품 전체 수출은 7.6% 증가했으나, 對브라질은 86.5%, 對중국 34.7% 증가
- (기계류, 철강) 세계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중국 등 주요국가의 수요둔화와 경쟁격화로 하반기에도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
 - 기계류는 수요둔화 속에서 엔저에 따른 일본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수출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
 - * 엔저 효과로 공작기계, 건설기계 등 일본산 가격경쟁력 강화 현상 포착
 - 철강은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, 엔저로 일본산 제품 경쟁력 강화 등으로 하반기 수출 여건이 밝지 않은 상황
 - * 특히 철강은 선박 등 주요 수요 산업의 부진으로 당분간 부진 예상
- (석유제품) ASEAN, 미국 등에서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, 일본, 인도 등으로의 수출은 둔화 될 것으로 전망
 - * '13년 1~5월 국가별 석유제품 수출 : 미국 22.5% 증가 vs. 중국 10.8% 감소

- (반도체) 모바일 기기용을 중심으로 수출이 양호할 것으로 보이나, PC 시장 정체로 D램 등 메모리반도체는 증가가 다소 정체 예상
 - * '13년 1~5월 반도체(MTI 3단위) 수출은 9.0% 증가
- (석유화학) 신규 생산설비 가동 등으로 중국, 인도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, 미국, 대만 등은 부진 전망
 - * '13년 1~5월 석유화학 총 수출은 8.3% 증가했으나, 중국과 인도 수출은 13.8% 증가
- (LCD, 가전, 컴퓨터)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 지속으로 시장 수요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
 - 모바일용 LCD 패널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, 전체적인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이 걸림돌
 - 가전은 미국, 중국 등 주요시장에서 수요가 회복되고 있어 차츰 개선 될 것으로 기대
 - 컴퓨터는 모바일 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일부 최신기종 등을 제외하곤 수출 부진 예상
- (섬유 및 의류) 글로벌 수요 회복 지연과 중국, 인도 등 신흥국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열위로 주요국 수출 여건 악화
 - * '13년 1~5월 섬유수출 2.6% 증가했으나, 미국(△1.0%), 일본(△4.4%) 등 감소
- (무선통신기기) 해외생산이 증가하고 있지만, 국산 스마트폰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하반기에도 수출 증가세 지속 기대
 - * 무선통신기기 수출증가율(1~5월, %) : 35.3, 미국 25.2, 중국 50.9, 베트남 246.1
- (선박류) 상선분야는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, 드릴십, FPSO 등과 같은 고가 해양플랜트 수요는 증가 예상
 - 특히, 그간 수주한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인도 시작, 전년 기저효과 등으로 하반기부터 수출 감소폭 축소 기대
 - * 하반기 선박류 수출증가율(%) : '11년) 0.5 → '12년) △42.1

< 2013년 하반기 주요 품목의 지역별 수출 전망 >

품목명 (MTI코드)	2013년 하반기 전망(2012년 동기대비 증가율)										
	전체	중국권	아시아	대양주	유럽	북미	중동	일본	중남미	아프리카	CIS
일반정밀기계 (71,72,73,75,79)											
자동차 (741)											
자동차부품 (742)											
평판디스플레이 (836)											
반도체 (831)											
무선통신기기 및 부품(812)											
가전 및 부품 (82)											
컴퓨터 주변기기 및 부품(813)											
섬유 및 의류 (4)											
철강제품 (61)											
석유화학 (21)											
석유제품 (133)											
선박류 (746)											

호조(10% 이상 증가)
 양호(5~10% 증가)
 유지(0~5% 증가)
 하락(0~10% 감소)
 급락(10% 이상 감소)

자료 : KOTRA 해외무역관(바이어, 주재상사 등 767개 정보원 의견 종합)

□ (수입) 경기위축에도 기저효과로 수입증가율 소폭 증가

▶ '13년 국내경기 및 내수 둔화 지속과 낮은 수출증가율로 원자재, 주요 부품, 설비 등의 수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

- 작년 하반기 수입 기저효과(4.0% 감소)와 유럽(10.0%), 중국권(4.3%) 등의 수입수요 증가로 '13년 하반기 수입은 2.9% 증가 예상
-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에너지 자원과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수입도 둔화가 지속될 전망

< 2013년 지역별 수입 전망 >

(단위 : 억달러, %)

지역	2012년				2013년						
	상반기	하반기	연간		상반기		하반기		연간		
		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	비중
총계	2,641	2,554	5,195	△0.9	2,571	△2.6	2,629	2.9	5,200	0.1	100
중국권	486	482	969	△6.4	492	1.2	503	4.3	995	2.7	19.1
아시아	307	295	602	△3.2	295	△3.9	307	4.0	602	0.0	11.6
대양주	121	128	249	△12.4	107	△11.6	126	△1.8	233	△6.5	4.5
유럽	286	299	585	10.7	311	8.9	329	10.0	640	9.5	12.3
북미	262	224	486	△5.1	234	△10.7	230	2.7	464	△4.5	8.9
일본	327	316	644	△5.8	307	△6.2	306	△3.3	613	△4.8	11.8
중동	648	614	1,262	6.3	621	△4.2	622	1.2	1,243	△1.5	23.9
중남미	100	98	197	△2.2	92	△7.6	101	3.5	193	△2.1	3.7
아프리카	46	30	76	10.1	48	5.3	33	9.5	81	7.0	1.6
CIS	58	67	126	3.5	64	9.5	72	7.3	136	8.3	2.6

자료 : KOTRA 해외무역관(바이어, 주재상사 등 838개 정보원 의견 종합)

품목명 (MTI코드)	전망	2013년 하반기 전망(2012년 동기대비 증가율)
원유 및 가스 (131, 134)		▪ 원유는 수입이 감소하겠으나 천연가스는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반도체 및 장비 (831, 732)		▪ 국산 모바일 기기 시장점유율 확대로 반도체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장비 수입은 부진 예상
철광석 (112)		▪ 철강 수요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철광석 수입 감소

 호조(10% 이상 증가)  양호(6~10% 증가)  유지(0~5% 증가)

 하락(0~10% 감소)  급락(10% 이상 감소)

자료 : KOTRA 해외무역관(바이어, 주재상사 등 767개 정보원 의견 종합)

II. 2013년 하반기 지역별 수출 여건

1 | 중국권 [9.5% 증가] * 중국, 홍콩, 대만

가. 중국

□ 최근 경제 상황

- 성장률 둔화, 내수회복 지연, 투자부진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
 - 중국 정부 '13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7.5%로 제시했으나, 골드만삭스, HSBC 등 IB들은 7.4%로 하향 조정
 - * 연간 중국 GDP 성장률(%) : '10년) → '11년) → '12년) 7.9 → '13년) 7.5
 - * 분기별 중국 GDP 성장률(%) : '12.3Q) 7.4 → 4Q) 7.9 → '13.1Q) 7.7 → 2Q) 7.6 → 3Q) 7.5 → 4Q) 7.3
 - '13년 6월 HSBC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(PMI) 예비치가 48.3로 9개월만에 최저치 기록, 4월 중국 비금융 분야 FDI 증가폭 0.4%로 4년만에 최저치
 - '13년 1~5월 중국의 수출증가율 13.5%했으나 월별 증가율은 둔화세
 - * '13년 월별 수출증가율(%) : 1월) 25.0 → 2월) 21.8 → 3월) 10.0 → 4월) 14.6 → 5월) 0.9
 - * '13년 1~5월 對홍콩 수출은 54.9% 증가했으나, 中 국가외환관리국은 수출대금으로 위장한 핫머니로 추정, 이를 제외할 경우 中 수출증가율은 10% 미만으로 예상
- 미국 양적완화 출구전략 논의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와 신용리스크 부각, 지방부채 등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적
 - *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GDP의 25.1%인 12조 8,500억 위안으로 추산
 - * '13년 중국의 그림자 금융(Shadow Banking)¹⁾ GDP대비 40%대로 추정

1) '고수익'을 위해 전형적인 은행의 기능을 넘어서 구조화채권 매매를 통해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하는 금융시장시스템 영국의 <이코노미스트>지가 2008년 9월 22일자 최신히에서 처음으로 쓰면서 유행

□ 시장 동향

- 내수시장 거점, 연해에서 내륙으로 이동
 - 향후 10년간 中 중산층 인구는 1.5억에서 4억으로 급증할 전망이며, 이중 2분의 3이 소도시 거주 인구(BCG)
 - 중산층의 성장이 대도시보다 소도시에서 더 빠르며, 소비 욕구 및 소득 증가에 따른 대규모 소비시장형성 예상
 - * 주요기업의 생산거점 이동 : 삼성전자(산시성 시안), HP & Asus(충칭)

- 온라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 지속
 - 중국 인터넷 이용자 수는 '12년말 약 5억 6,400만명, 온라인 쇼핑 이용자는 2억 4,200만명으로 추산
 - * 中 온라인 소매시장 거래규모는 '12년 1조 3,205억 위안(한화 약 238조원)으로 전년대비 64.7% 성장
 - * 중국 온라인 소매시장 규모는 '08년의 1,300억 위안 대비 약 10배 성장했으며, 향후 5년간 연평균 20%가 넘는 성장을 지속할 전망(I-Research)

- 강도 높은 산업 구조조정 및 재편
 - 자동차, 철강, 시멘트, 선박, 희토류, IT정보, 의약, 전해알루미늄, 현대화 농업 등 9개 업종을 위주로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
 - * 규모의 경제 실현, 중복투자 제한, 과잉생산에 따른 시장 가격 합리화 등을 목표로, '15년까지 10개사 내외 대기업 위주로 주요 업계가 재편될 전망

 - 중국의 산업구조 재편은 한국 기업에게 전반적으로 불리하나 일부 부품업종에는 호기로 작용할 전망
 - * (자동차) 中 자동차 메이커의 품질개선을 위해 한국산 부품 구매 증가
 - * (철강) 中 철강업계의 공급과잉이 해소로 철강가격 정상화, 출혈경쟁 완화
 - * (조선) 산업집중도와 기술수준을 향상으로 국내기업과의 경쟁 격화
 - * (IT) 기업규모 확대와 기술력 향상으로 중국 IT기술이 빠르게 향상될 전망

□ 하반기 수출 여건

- '13년 하반기부터 新도시화 추진에 따른 투자 확대 및 더딘 내수 회복세 진행 예상
 - 하반기 발표 예정인 新도시화 정책에 따른 고정자산 투자 증가와 최근의 부동산 시장 회복 추세로 하반기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상승
 - * 소매판매 반등 조짐과 연초 반부패 전쟁에 따른 소비 위축세의 약화로 내수 회복에 추가 시간 소요 전망
- 중국의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에도 한국의 對中 수출은 내륙 투자 확대 및 주력제품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에 비해 개선 전망
 - 현대차, '14년까지 중국내 연 105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할 예정, 삼성전자는 산시성 시안 반도체 공장 '14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 (총 70억 달러 투자)
 - '13년 1분기 기준 삼성 스마트폰, 중국에서 1,250만대 판매로 시장점유율 1위 기록
- '12년 對中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하반기 중국 경기의 소폭 반등 전망으로 올해 對中수출 증가율은 예년 수준인 10%선 회복 전망
 - '12년 한국의 대중수출은 전년대비 0.1% 증가에 그쳤으며 12개월 중 총 9개월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, 지난해 수출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예상
 - 중국의 新도시화 정책이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경기부진 시 정부의 경기부양책 또한 기대, 상반기 대비 중국의 대내외 경제 여건이 호전될 전망

나. 대만

□ 최근 경제 상황

- 경제성장률, 대외교역, 민간소비 등 연초대비 하향
 - 대만 정부는 연초 3% 이상 성장을 전망하였으나 최근 올해 성장률을 2.4%로 하향 조정(5월 24일 행정원 주계처)
 - * '12년에도 당초 3.91% 성장을 예상했으나, 최종 성장률은 1.26% 기록
 - 민간소비 성장률 전망치도 연초 2.57%→ 1.46%로 조정
 - * '13년 1분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0.35%로 '09년 3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

□ 시장 동향

- 무선인터넷 이용자 급증
 - '13년 4월 기준 무선인터넷 이용자수 1,000만명 돌파(전체 인구의 약 43%)
 - * '15년부터 4G 서비스도 상용화될 계획으로 모바일 게임, 클라우드 등 콘텐츠 관련 부가가치 산업의 발전 기대
- 중국인 자유관광 허용도시 확대, 자유경제시범단지 활성화
 - '13년 6월부터 13개 도시를 추가 허용해 총 26개 도시로 확대
 - 자유경제시범단지 활성화 방안 승인 첨단서비스업 유치로 제조업과의 융합 추진
 - * 통관절차 간소화, 토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, 임대료 및 각종 세제혜택이 마련될 전망

□ 하반기 수출 여건

- 세계경기 불안감 지속, 엔저 등 영향에도 불구하고 '12년 기저효과, IT 품목 수출 호조 등으로 증가세 예상
 - 엔저로 자동차, 화장품, 생활 잡화 등 일본산 가격 인하 발생
 - * '12년 對대만 수출증가율(전년대비) : 상반기 △21.5%, 하반기 △15.4%, 연간 △18.6%

다. 홍콩

□ 최근 경제 상황

- 경제성장세 지속, 소비자 물가 안정 등 경제여건 개선 기대
 - '13년 1분기 성장률 2.8%로 전기대비 0.2% 성장
 - '13년 1분기 수출, 수입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3.9%, 4.9% 증가
 - 국제 농산물,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

□ 시장 동향

- 중국관광객 방문 증가로 내수시장 활황
 - '11년 기준 홍콩전체 소비시장의 40%, GDP 성장률의 0.5~1.0%를 차지
 - * 홍콩정부는 '13년 중국 관광객이 전년대비 8.9% 증가한 3,800만명 예상
 - 중국 관광객들 명품보다 중저가 브랜드를 선호로 쇼핑 트렌드 변화
 - * 중국 경제성장 둔화, 중국 정부의 부정부패 억제 노력 등으로 과거 명품 소비재보다는 패스트패션, 아울렛 등을 많이 이용

□ 하반기 수출 여건

- 중국 경제의 더딘 회복에 따른 전반적인 부진으로 낮은 수출입 증가 예상
 - 중국의 대외교역 부진으로 홍콩 교역도 부진
- 모바일 기기, IT 부품 등 한국산 제품의 수요 증가 기대
 - '13년 1분기 스마트폰, 태블릿 등 IT기기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9% 증가하였으며, 한국산 스마트폰에 대한 인기

2

아시아 [7.0% 증가] / 대양주 [3.2% 증가]

가. 동남아

□ 최근 경제 상황

- 글로벌 경제부진,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주요국 경제성장이 둔화세
 - (인니) 원자재 가격하락, 정부 정책 불안정으로 1분기 GDP 성장률은 6.0%로 최근 2년 중 최저치 기록
 - * 인니 정부도 '13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6.8%에서 6.3%로 하향 수정
 - (태국) 글로벌 경기침체, 바트화 강세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하고 있으며 1분기 경제성장률은 5.3%로 전분기보다 2.2% 감소
 - * 태국 정부도 '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.5~5.5%에서 4.2%~5.2%로 하향
 - (베트남) 공기업 구조조정 실패, 고물가 지속,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'0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
 - * IMF는 지난 5월 베트남 '13년 GDP 성장률을 5.8%에서 5.2%로 조정

□ 시장 동향

-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내수시장
 - (인니) 중산층 증가로 新소비 패턴 등장, 고가제품과 명품에 대한 선호도 지속 확대
 - * 중산층 인구 1/2가 세탁기 보유, 중산층의 스마트폰 보급률 22%, 노트북 및 PC 29%
 - (태국) 중산층의 소득 증가로 디지털 기기, 데이터 서비스의 구매력이 크게 증가하고, 태국 정부도 인프라 구축 노력 강화
 - * 전체 인구의 50%가 30세 미만으로 디지털화에 친숙한 상황
 - (말련) '12년 최초로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섰으며, 생활패턴이 서구화되고, 관련 소비재 시장이 급성장
 - * 외식, 화장품, 의류, 중고가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

-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 사업 추진 지속
 - (말련) '20년까지 1인당 GDP 15,000달러를 목표로 에너지(석유, 가스, 팜오일 등)개발, 민간의료서비스, 칼리룸푸르 광역권 개발 등 12개 분야 131개 프로젝트 추진 중
 - (필리핀) '13년 1분기에만 581억 페소(약 14억달러)를 지출, 현재 30여개의 PPP(Public Private Partnership) 프로젝트가 입찰 대기 중
 - * 마닐라 경전철 확장공사(12.5억달러), 카비테-라구나 고속도로 신설(8.3억달러)
 - (미얀마) 국가경제개발을 위한 전력, 통신, 도로 등 기초 인프라 건설 추진, 경제특구, 자원개발 등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투자 가속화

□ 하반기 수출 여건

- 아세안 각국 정부의 경기진작 정책, 경제한류 지속으로 산업재뿐만 아니라 소비재 등 전체적으로 품목의 수출 증가 유지 기대
 - 싱가포르, 필리핀, 인도네시아 등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주요국의 건설 시장에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로 관련 기자재 동반 수출 증가
 - 특히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 등 경제한류의 성숙지역으로 꼽히는 국가는 한국산 소비재 수요는 생활용품에서 농수산물까지 광범위하게 확대
- 다만,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, 엔저에 따른 경쟁구도 변화 영향으로 철강, 기계류 등 품목은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
 - (인니) 미국, 유럽에 수출하는 봉제, 타이어에 사용되는 편직물, 합성고무 등의 수요 감소, 엔저로 한국산 냉연강판 경쟁력 약화
 - (말련) 철강제품의 공급 과잉으로 냉연강판, 아연도강판 등 주요 철강 제품의 수출 부진
 - (필리핀) 철강 판재류의 경우 일본산 가격경쟁력 강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

나. 서남아

□ 최근 경제 상황

- 주요 3국인 인도, 파키스탄, 방글라데시의 경제회복 지연
 - (인도) 주요기관들 '13년 GDP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
 - * 기관별 인도 성장률 하향 조정 내역(기존 → 조정) : IMF) 5.9% → 5.7%, HSBC & 모건스탠리) 6.2% → 6.0%
 - (파키스탄) '13년 상반기 新정부(나와즈 샤리프 정부) 출범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채, 인플레이션 등 각종 경제적 문제 산적
 - (방글라데시) 정치적 불안 등으로 회복 지연 예상
 - * 방글라데시도 '13년 하반기 총선 실시에 따른 정국 불안으로 성장률 둔화 조짐(당초 6% 이상 성장에서 5%대로 성장률 하향 조정)
- 스리랑카는 관광산업 활황 및 해외거주 노동자의 본국 송금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 구현

□ 시장 동향

- (인도) 의료시장 급성장 vs. 자동차 산업 부진 예상
 - (의료시장) 연평균 성장률 약 12%의 높은 수준 기록
 - * 인도 의료산업 시장규모 : '11년) 720억 → '12년) 780억 → '15년) 1,000억 → '20년) 2,800억
 - (자동차) '13년 3월 승용차 판매실적은 작년동월대비 20% 하락,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
 - * 경기침체와 높은 금리로 소비심리 위축
- (파키스탄) 새로운 정부의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낙관론도 등장
 - 의료장비, 농기계, 화학, 화장품, 보안상품 등이 유망

- (방글라데시) 정부의 수입억제 완화 움직임, 인프라 & 에너지 개발 등 경기둔화 대응을 위한 각종 조치 시행 예상
 - '13년 6월초 발표된 내년 예산안은 기계장비,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제시
 - * 다만, 하반기 총선으로 계획된 프로젝트의 실행, 활성화는 미지수
- (스리랑카) 대규모 도심개발 프로젝트 등 건설공사 활성화는 기회 요인이나, 사치성 소비재 수입억제 정책 지속은 부정적 요소
 - 태양광, LED 등 재생 또는 에너지 절약형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감면
 - 자동차, 에어컨 등 국민소득 대비 고가인 소비재 수입억제 정책 시행 중
 - * '13년 1분기 소비재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9.4% 감소

□ 하반기 수출 여건

- (인도) 엔저, 경기둔화에도 한국산의 인지도 높으나 인도 경상수지 적자 (GDP 약 5% 수준), 미달러 강세 등으로 루피화 급락이 불안요소
 - 루피화 하락에 따른 수입품 가격상승 효과로 수입이 감소하고, 저렴한 거래선 확보 움직임이 발생 가능
 - * 루피화는 연초대비 약 9.6% 하락(6월 21일 기준), 최근 5년래 가장 낮은 수준 이고 6월 26일은 사상최초로 달러당 60루피화를 돌파
- (파키스탄) 산업용 원부자재 수입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한국산 수입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
- (방글라데시) 경제성장 둔화, 엔저 영향 발생 등으로 전반적인 수입여건이 악화되는 상황
 - 특히 엔저로 철강제품, 기계장비 등에 부정적 영향 발생
- (스리랑카) 도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건설부자재, 의류용 원부자재 등이 수요 증가 예상

다. 대양주

□ 최근 경제 상황

- 호주는 세계 경제 부진에 따른 자원수요 둔화로 타격이 발생하고 있으나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
 - (호주) 광업부분 상품가격 하락으로 경제성장률 및 신규투자 증가율 둔화
 - * GDP 성장률(%) : '12년 3.5 → '13년 2.9^P, 신규투자(%) : '12년 8.4 → '13년 6.4^P
 - (뉴질랜드) 중심지역의 부동산 수요 증가, 지진피해 회복 등에 따라 3%대의 양호한 경제성장 기대

□ 시장 동향

- (호주) 온라인 시장의 영향력 증가
 - 보수적이던 호주 소비자들도 모바일 기기 보급 확대로 온라인 시장이 크게 성장 중
 - * 호주 온라인 시장 비중(%) : '11년) 5.5 → '12년) 6.3 → '13년) 7.2
 - 호주 진출시 넓은 국토와 적은 인구로 유통채널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매장을 적극 활용 필요
- (뉴질랜드) '13년 1분기 한국은 뉴질랜드의 5위 수입국으로 등극
 - 유럽, 미국, 일본 등 선진국대비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

□ 하반기 수출 여건

- (호주) 경기둔화, 호주달러의 고평가에 따른 현지 제조업 쇠퇴로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
- (뉴질랜드)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상승과 석유화학, 지진복구용 건축자재 등 수출 여건 양호

3 유럽 [0.1% 감소]

□ 최근 경제 상황

- 유럽 경기침체 하반기에도 지속 예상
 - '13년 1분기 EU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(-0.1%)보다 낮은 -0.2% 기록
 - * 유럽재정위기 해결 지연과 중심국인 독일이 이상기후²⁾ 등에 따른 건설업 부진으로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 0.3%보다 낮은 0.1% 성장
 - 주요 기관들의 '13년 유로존의 경제성장률 전망
 - * ECB('13년 6월) : 기존 $\Delta 0.5\%$ \rightarrow $\Delta 0.6\%$, IMF('13년 4월) : 기존 $\Delta 0.1\%$ \rightarrow 조정 $\Delta 0.3\%$
- 다만, 각종 경제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 유럽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서서히 제기
 - * 5월 경기신뢰지수가 4월 88.6보다 상승한 89.4 기록(6월 지수는 27일 발표 예정)
 - * 6월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예비치-18.8로 7개월째 개선되어 22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, EU 전체 지역도 6월 -17.5로 5월 -20.2보다 상승

□ 시장 동향

-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실용적 소비트렌드 고착
 - (온라인 쇼핑) 절약을 위한 실속형 소비패턴, 모바일 기기 사용 확대 등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실제 구매를 하는 쇼루밍 같은 “오프라인 + 온라인” 결합의 구매형태 확대
 - * (독일) '12년 온라인 시장 규모는 약 450억 유로로 전체 유통의 약 10% 수준
 - * (프랑스) 도시 외곽에 위치한 대형유통업체들은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고 ‘드라이브’라는 보관소를 신설하여 매출 증가
 - * (이탈리아) '12년 전체소비는 3.2% 감소했으나 전자상거래 시장은 12% 증가
 - * (영국) 온라인 쇼핑을 통해 최저가를 찾아 구매하는 소비행태 확산

2) 독일은 지난 겨울 40년래 최저치의 일조량을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잦은 눈, 비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발

- (할인)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한 할인 행사, PB 등 이용 확대
- * (이탈리아) '12년에만 169개의 할인점이 신규 오픈해 전국에 4,615개 존재
- * (프랑스)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일정 금액을 구매하면 소형 가전제품 가격을 절반이상 할인해주는 행사 빈번
- * (벨기에) 의류, 생필품 등 유통분야에서 PB 제품 판매 비중 확대

□ 하반기 수출 여건

- 對EU 수출은 감소세가 둔화될 것으로 기대되나, 여전히 주력품목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에 본격적 증가세는 '14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
- (독일) 자동차, 무선통신, 인조섬유 등의 주요 품목 수출이 선전하는 가운데 유로존 불안심리가 완화로 소폭의 수출 증가세 기대
- (영국) 구매력 저하로 소비재 수출은 부진하겠으나 건설경기 호전으로 중장비, 기계 등 건설기자재 수요 확대 예상
- * '13년 4월부터 150억 파운드(25조원) 규모의 신규주택 구매 지원정책(NewBuy Deal) 시행
- (프랑스) 기업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제품, 고무제품, 섬유제품, 신변잡화 등 한-EU FTA 수혜 품목은 증가 기대
- (이탈리아) 높은 실업률과 함께 소비시장 부진으로 하반기 수출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
- (스페인) 내수침체로 수출비중이 큰 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수출 부진 지속 우려
- (벨기에) 한-EU FTA로 한국산 석유화학, 섬유 등의 가격경쟁력은 향상되었으나, 현지 경기 둔화로 인해 효과 상쇄
- (헝가리) 긴축 기조 지속으로 내수시장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나, 헝가리 주재 자동차 메이커들의 생산증대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 및 설비 등은 수출 확대 기대

4 | 북미 [5.2% 증가] * 미국, 캐나다

가. 미국

□ 최근 경제 상황

- 완만한 경기회복세 지속, 소비·주택부문 중심으로 민간부문에서의 회복 모멘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
 - '13년 1분기 GDP 성장률 당초 2.4%에서 1.8%로 하향
 - * 美 분기별 GDP 성장률(%) : '11.4Q 4.1 → '12.1Q 2.0 → 2Q 1.3 → 3Q 3.1 → 4Q 0.4 → '13.1Q 1.8
 - * 5개 IB³⁾들의 '13년 美 경제성장률 평균 1.9%
 - * 주요 IB 전망치(%) : Deutsche Bank 2.2, Goldman Sachs 2.1, JP Morgan 1.8, Morgan Stanley 1.6
- 연초 세계개편⁴⁾, 시퀘스터⁵⁾ 발동에도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%가 넘는 민간소비가 6개월 연속 증가하는 회복세
 - 5월 소비자신뢰지수(미시건대 기준) 84.5, '0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
 - * 개인소비지출 증가율 추이(%) : '12.3Q) 1.5 → 3Q) 2.0 → 4Q) 1.8 → '13.1Q) 3.4
- '13년 하반기 미국경제 성장세 지속 전망
 - 하반기에도 회복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일시적인 경기둔화(Soft Patch) 가능성도 존재
 - * 실제 '13년 2~3분기 시퀘스터 및 세계개편 영향 본격화로 일시적 경기부진 현상 발생 가능성 제기(4월 소비지출 전월대비 0.2% 감소)
 - 월가 투자은행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시퀘스터, 세계개편의 영향이 점차 희석됨에 따라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 - 다만, 유럽 경기부진,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등 대외 경제여건 악화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3) Barclays, Deutsche Bank, Goldman Sachs, JP Morgan, Morgan Stanley

4)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, 사회보장세(Payroll Tax) 인상(4.2% → 6.2%) 등 기존 감세조치 종료

5) '13년 3월부터 발동된 정부지출 자동삭감 조치로서 2013 회계연도에 감축 규모는 850억 달러

□ 시장 동향

- 근검 절약형 소비트렌드 정착
 - 딜로이트(Deloitte)⁶⁾가 美 소비자 4,04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, 응답자의 94%가 향후 경기가 개선되어도 현재의 소비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도 응답
 - * 유통망 자체브랜드(Private Brand) 구입 증가, 할인제품 구매 확대 등으로 경제가 회복되어도 과거와 같은 왕성한 소비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
- 히스패닉 구매력 급팽창
 - 전자제품, 건강, 미용제품 소비가 다른 계층에 비해 활발하고, 대가족 비중이 높아 생필품에 대한 소비지출이 높은 상황
 - * 미국내 히스패닉 인구와 비중(만명) : '00년 3,528(12.5%) → '12년 5,300(16.9%) / 50.2%↑
 - * 히스패닉 구매력(Nielsen, 조달러) : '01년 0.53 → '11년 1.1 → '15년 1.5
 - * 이미 P&G, 펩시 등은 기존 광고에 스페인어 문구를 추가하는데서 벗어나 유명 히스패닉 배우를 내세워 히스패닉 라이프스타일과 문화를 반영한 광고를 별도 제작
- 해외진출 미국기업들의 U턴 증가
 - 중국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, 신흥시장 등에서 높아진 미국산 (Made in USA) 제품에 대한 선호도 등
 - * 중국제조업 평균 임금 : '00년 0.52달러 → '10년 4.5달러
 - * 생산성을 감안한 중국 인건비 수준 : '10년 미국의 31% 수준 → '15년 44% 수준
 - * 보스턴 컨설팅에 따르면 美 대형 제조업체들의 37%, 미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의향
- E-Commerce 시장 지속 확대
 - '13년 1분기 美 온라인 시장*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3.0% 증가한 500억 달러 기록
 - *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 보급 확대, 美 소비자들 사이에서 '근검·절약형' 소비패턴이 정착되면서 일반 매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 제품 구매 확산

6) '2013 American Pantry Study' 보고서

□ 하반기 수출 여건

- 상반기보다 강한 미국 경기회복세 수입 수요도 증가 예상
 - '13년 우리나라 對미국 수출은 1분기까지 감소했으나 2분기 이후 증가세로 전환
 - * '13년 1분기 수출 전년동기대비 16.1% 감소, '13년 4~5월 수출 전년동기 대비 10.6% 증가

- 對美 주력 수출품목의 현지수요 호조
 - (자동차) 경기회복에 따른 그간 억압된 수요(Pent-up Demand) 분출로 신차판매 증가세 지속
 - * '13년 1~5월 신차판매 대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.3% 증가
 - * 한국산차량은 현지 수요지속에도 불구하고 공급부족으로 판매 부진
 - (자동차부품) FTA 발효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, 한국산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현지 자동차 메이커들의 아웃소싱 확대
 - * '13년 1~5월 중 對美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.8% 증가
 - (무선통신기기) 현지 스마트폰 보급 확대, 삼성전자의 신제품 (Galaxy S4) 출시 등에 힘입어 현지 판매 호조세 지속
 - * '13년 4월 말 기준 美 스마트폰 사용 인구 1억 3,850만명, 1월 말 대비 7.0% 증가

- 자동차, 스마트폰 등 주력품목의 해외생산 증가로 대미 직접 수출 효과 일부 상쇄, 또한 일부 품목은 엔저영향 발생 우려
 - '13년 현대기아차 미국 현지 생산량을 75만대로 상향 조정('12년 생산량은 68만대)
 - * 삼성전자 스마트폰 해외생산 비중 : '10년) 15.9% → '12년) 56.8% → '13.1Q 79.7%
 - 기계류, 철강, 가전 등은 일본산 제품과 경합이 높은 품목에서 피해 발생 가능성 제기
 - * 엔저로 일본산 공작기계가 한국산과 5%까지 격차 축소, 일본산 철강도 한국산보다 10% 정도 저렴한 상황 발생

나. 캐나다

□ 최근 경제 상황

- 캐나다 경기 회복 신호 감지
 - '13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.6% 성장, 연 단위로 환산할 경우 2.5%로 최근 6분기 중 가장 높은 수치 기록
- 다만, 여전히 저조한 기업의 설비투자, 유럽 경기 침체 등으로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
 - 기업의 생산시설 및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1년 3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

□ 시장 동향

- 유통업체간 경쟁 심화
 - 미국 타깃(Target)社의 캐나다 진출('13년 3월, 21개 매장 오픈), 온라인 유통매장의 할인 경쟁 등으로 원가절감 노력 증가
 - * 캐나다로 수출되는 한국산 소비재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, 인도, 베트남 등 개도국 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

□ 하반기 수출 여건

- 캐나다 수입, 경기 개선과 함께 하반기에 소폭 상승할 전망
 - '13년 1분기 캐나다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% 미만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4월 한 달 동안에는 3.5% 증가
 - * 캐나다 최대의 수출 대상국인 미국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 확대로 캐나다 경기 회복도 조심스레 예상
 - * 캐나다의 경기 회복과 함께 2013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수입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

5

일본 [11.0% 감소]

□ 최근 경제 상황

- 일본 정부 '13년도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을 0.9% 발표, 연율로 환산시 3.5%로 높은 수치
 - 국내민간수요는 前분기 대비 0.5% 상승
 - * 개인소비 0.9%상승, 설비투자 0.7% 감소
 - 공공수요는 前분기 대비 0.6% 상승, 공공투자 0.8% 상승
 - 일본의 수출은 前분기 대비 3.8% 증가, 수입은 1.0% 증가
- '13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.5%(기존 1.7%)로 상향 조정
 - 아베노믹스로 인한 양적완화 정책 등으로 엔화환율 하락, 주식시장 호조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산과 엔화약세로 주요기업 수익 급증 전망
 - * 1엔 약세 시 TOYOTA 400억엔, CANON 77억엔 수익 증가
- 미래 성장전략에 대한 구체성 부족에 대한 우려도 부각
 - 금융완화, 재정정책에 이어 6월 14일 新성장 전략 제시
 - 10년내 1인당 국민총소득을 150만엔 증가시키는 등 구체적인 수치 목표 제시
 - 산업재생, 전략시장 창조, 글로벌 전개가 축
 - * 아베 수상 올 9~10월경 2차 성장전략 제시 표명 예상
 - 그러나 일본 장기금리 상승, 미국의 출구전략, 성장전략에 대한 실망감 등의 영향으로 금융시장 불안정 확산
 - * 장기금리(10년채) : 0.315%(4.5) → 0.860(6.7)
 - * 엔/달러 환율 : 103.7엔(5.22)→ 95.2(6.7)
 - * 닛케이지수 등락

□ 시장 동향

- '13년 소비 트렌드는 "견실(堅實) Rich" "간단 혁명"
 - 월간 정보지 "닛케이 트렌디'가 선정한 "2013년 상반기 히트상품 베스트 30'의 제 1위로 "아베노믹스 소비 '가 선정
 - '13 년 상반기에는, 과거 버블 붐과 같은 소비 행동은 보이지 않았지만, 부유층을 중심으로 고액의 보석과 시계, 자동차 등의 매출에 변화가 발생
 - * 프리미엄 주류 및 1,000엔 이상 하는 안약 등, 일반 소비제품에서도 아베노믹스 효과 발생
 - * 소비의 트렌드를 지출하는 이상 절대로 손해보고 싶지 않다. 확실히 만족하고 싶다는 '견실 리치' 로 분석
 - 기존에는 없던 기능과 판매 스타일 등의 "간단 혁명 ' 상품도 부각
 - * '필립스 논플라이어(5위)' 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튀김을 할 수 있는 제품임
 - * 신선한 커피를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변화

순위	현 상
1	아베노믹스 소비
2	바즈루 & 도라곤 (바즈도라) (게임)
3	Nexus 7&i Pad mini
4	하야시 오사무 : 지금이잖아요!
5	필립스 논 플라이어
6	유루 카라
7	편의점 커피
8	블루투스 기기
9	튀어나와라 동물의 숲(게임)
10	신주쿠 3초메

- 젊은 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'나홀로 활동'
 - 닷케이산업지역연구소가 수도권 및 긴키 거주 20~40대의 미혼 남녀 1,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나홀로 활동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
 - * '혼자하는 외식이나 외출·레저활동 등이 3년 전보다 늘었는가?'라는 질문에 '늘었다'고 답한 사람은 20대가 39.3%를 차지했으며, 조사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
 -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배경으로 SNS의 보급을 들 수 있음. 특히, 20대는 타 연령대보다 SNS활용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친구들과 연결돼 있다고 느끼므로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파악
 - * 혼자서 소비하는 일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비액 변화를 질문한 결과 36.3%가 소비액이 증가한 것으로 답변

□ 하반기 수출 여건

- 제조업 경기 회복 기대, 공공사업 확대 및 해외 조달 수요 지속에 따라 주요 대일 수출 품목의 수출은 지속 예상
 - 스마트폰 판매 증가, 한국산 소비재 수요 증가 지속
 - 일본 국내의 생산 활동 회복, 부흥사업 및 경기대책을 위한 공공사업에 따른 자재수요의 증가 등은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 전망
 - * '13년 2.5% 증가한 92.6조엔 예산 편성, 공공사업비 16% 증가
 - * 특히 '14년 4월 소비재 인상 전 선취수요로 인해 하반기 소비 확대에 긍정적 예상
- 그러나 엔저 영향 계속 시 수출 감소 불가피
 - '12년도 말부터 시작된 엔저 추세로의 전환으로 기존 對日수출 채산성 악화 및 이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영향 확대 예상
 - * 특히 일본시장은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높아 엔화약세에 취약

6

중동 [3.5% 감소] * 북아프리카 제외

□ 최근 경제 상황

- 산유국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비산유국은 부진 지속
 - '11년 아랍의 봄의 여파는 진정되었으나, 불안한 정치·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히 경제 안정에 변수로 작용
 - * 시리아 무력충돌 및 對이란 경제재제의 장기화, 최근 터키 소요사태 발발 등

< MENA 지역 주요 경제지표 >

구분	2012년			2013년(전망)		
	MENA 산유국	GCC	MENA 비산유국	MENA 산유국	GCC	MENA 비산유국
실질GDP성장률	5.7	6.0	1.9	3.2	4.0	2.7
경상수지	16.6	23.0	△7.7	14.3	19.7	-5.7
재정수지	6.9	14.4	△8.8	4.7	10.7	-8.9
인플레이율	12.0	2.4	8.9	10.5	3.2	9.9

- 자료 :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(2013.5월) * 증가율(%)

- 글로벌 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석유수요 감소로 '13년에는 非 석유부문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전망
 - 주요 산유국의 원유생산량 조정으로 석유수출 증가세 둔화 예상
 - * 리비아·이라크 원유증산 반면, 사우디 생산량 소폭 하락 및 이란 원유수출 급감

□ 시장 동향

- 대형 프로젝트 사업 지속
 - (UAE) 지하철, 철도, 주택 건설 등 정부주도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
 - * 주요 프로젝트 : Al Gharbia Chemicals Industrial City(US\$200억 규모), Sobha City 건설 프로젝트(수주액 미정), Taj Arabia City(10억 달러 규모) 등
 - (사우디) 건설 및 플랜트, 헬스케어, 교육 등 정부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지속
 - * '13년 예산배정 : 신규프로젝트(US\$761억), 교육(US\$544억달러), 교통·운송(US\$173억)

- (터키) 에너지·발전 플랜트 건설 확대, 물류 및 운송 인프라 확대추진
 - * 원전 3기 건립 예정(2기는 일본, 러시아가 각각 수주), 공항 및 고속철 등 물류 인프라 구축
- 이란 제재 강화에 따른 부작용
 - (이란) 조선, 해운, 항만 및 자동차분야 거래 금지로 우리수출에 타격
 - * '13년 1~5월 對이란 수출 18.6% 감소, 합성수지 -33.1%, 철강판 49.1%, 자동차 27.5% 등
 - (UAE) '13년 7월부터 對이란 제재 강화로 최대 중계무역지인 두바이를 통한 이란 우회 수출도 축소 가능성
 - * 중도우파 성향의 로하니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서방과 화해모드 조성 가능성도 제기

□ 하반기 수출 여건

- 성장률 둔화에도 수입수요 개선 기대
 - (사우디) 가처분 소득 증가, 중산층 확대로 수입소비시장 활성화
 - (UAE) 경기 회복과 관광산업 호조로 내수소비 확대
 - (오만) '13년 7월부 최저임금 인상(US\$520 → US\$845)에 따른 소비 시장 활성화 기대
- 한국 건설사들의 수주확대로 기자재 수출 증가 예상
 - (UAE) 이미 진행 중인 원전('09년 수주 US\$ 200억), Ruwais 정유폐기물('12년 US\$25억) 시설공사와 '13년 해상 Offshore 공사(US\$20억), 화력발전소(US\$9.5억) 등 신규 수주
 - (사우디) '12년 수주금액 162억 달러, 전체 누적 1,707건 1,186억 달러로 기자재 수출 본격화 기대
 - (카타르) 도하 메트로(US\$250억), 상수도 프로젝트(US\$100억) 등 착공으로 건설장비, 철강 등 수출 확대 전망

7 | 중남미 [1.8% 감소]

□ 최근 경제 상황

- 세계경제 회복 지연으로 중남미 대표 경제의 성장 둔화
 - (브라질) '13년 GDP 성장률이 연초 3.26%에서 2.77%로 하향 조정
 - * 브라질 GDP 성장률 추이(%) : '09년 Δ 0.3 → '10년 7.5 → '11년 2.7 → '12년 0.9
 - (멕시코) '13년 1분기 성장률이 0.8%로 전기 3.2%대비 크게 하락
 - * 분기별 멕시코 GDP 성장률 추이(%) : '12.1Q) 4.9 → '2Q) 4.5 → 3Q) 3.2 → 4Q) 3.2

□ 시장 동향

- 중산층 확대에 따른 내수시장 성장 지속
 - (브라질)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소비 지속
 - * 중산층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돌파, 저소득층 소비도 증가세 유지
 - (콜롬비아) 중산층 인구 증가로 수입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
 - * 고급쇼핑몰, 유통마트 등에서 중고가 수입산 제품 소비 확대
 - (에콰도르) 최근 10년간 중산층(가족 1인당 월소득 US\$300이상) 비율이 14%에서 35%로 확대
 - * 승용차, 스마트폰, TV 등 중고가 내구성소비재 수요 급증

□ 하반기 수출 여건

- 중남미의 성장 둔화에 따른 선박, 자동차 등 주력품목 수출 둔화와 함께 수입규제 증가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 초래
 - (브라질) 반덤핑 조치, 관세인상, 자국산 부품 의무사용비중 상향 등
 - * 브라질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공업세 인상조치로 '12년 자동차 수출 52% 감소, '13년 1~5월 57.9% 감소
 - (멕시코) 6월 3일 한국산 자동차용 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
 - (아르헨티나)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승인 지연, 거부 성행

8 | 아프리카 [3.5% 감소] * 북아프리카 및 사하라이남

□ 최근 경제 상황

-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자원, 원유 수요 부진으로 자원 의존도가 큰 아프리카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률 둔화
- IMF는 '13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성장률을 당초 5.8%에서 5.6%로 하향 조정
- * 최대 경제국인 남아공은 주요 수출 산업인 광업 부문의 부진과 집권여당 ANC의 취약한 정치 리더십으로 경제 성장세 둔화

□ 시장 동향

- 한국산 제품 수요 증가
- 유럽산, 중국산으로 양극화되어 있던 수입시장에서 제 3국, 특히 한국산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
- * 전반적으로 자동차, 가전, 모바일 기기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
- 경제성장 지속을 위한 각종 인프라 사업 적극 추진
- (케냐) 국가경제개발계획에 의해 물류,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 추진
- * 라무항 종합개발(US\$220억), 콘자 테크노파크(US\$100억), 타투 신도시(US\$50억) 등
- (콩고) 외국 민간기업 주도의 인프라 및 사무실, 주거지 확대 사업 추진
- * 건설경기 호조로 외국산 건설 중장비, 건설기자재 수요 증가세

□ 하반기 수출 여건

- 한국산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격중심 시장으로 큰 폭의 수출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
- 품질논란에도 중국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한 상황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현지맞춤형 제품 개발과 동시에 고소득층을 겨냥하는 이원화 전략 필요

9

CIS [0.5% 증가]

□ 최근 경제 상황

- 유럽 경기침체로 중심국인 러시아 경제 위축
 - 러시아, 최대 교역국인 EU의 경제위기로 수출 및 투자 부진
 - * '13년 러시아 GDP 성장률 하향 조정(%) : IMF(3.7 → 3.4), OECD(3.4 → 2.3), EIU(3.7→2.8)

□ 시장 동향

-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내수시장 확대
 - (러시아) '01년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된 중산층 규모가 향후 5년내 총 인구의 27%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
 - * 중산층의 비중을 20~25%로 보는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이들 대부분이 금융, 석유가스, 철도 운송, 전력산업 등에 종사하는 이들이라 발표
 - (카자흐스탄) 중산층 증가로 가격중심에서 품질로 소비시장 개편 중
 - * 특히 선진화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

□ 하반기 수출 여건

-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, 우크라이나의 경제여건 악화로 전반적인 對CIS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
 - (러시아) 현지 자동차 시장 침체로 완성차뿐만 아니라 타이어와 같은 관련 품목의 수입수요가 둔화 될 것으로 예상
 - * '13년 300만대 규모로 예상했던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3월부터 급감해 '12년 285만대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
 - (우크라이나) 수입차 관세 인상, 경기침체로 전자제품 수출 부진 지속 예상
 - * '13년 5월까지 자동차 수출 53.2% 감소, 냉장고 44.6% 감소, 무선통신 28% 감소

Ⅲ. 2013년 하반기 지역별 수입 여건

1 중국권 [4.3% 증가] * 중국, 홍콩, 대만

□ (중국) 우리 수출정체로 따른 중국산 원부자재 수요 부진

- '13년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낮은 상황에서 철강, 원료 등의 수입수요 둔화 지속 예상
 - * '13년 1~5월 對중국 철강관 수입 17.1% 감소, 정밀화학원료 7.2% 감소, 선재봉강 및 철근 12.0% 감소
- 對중국 수입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 내수시장, 건설투자 등이 회복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
 - * '12년 기준 원자재 + 자본재 수입은 전체 對중국 수입액의 80.3%이며 이중 47.6%가 내수용으로 수입

□ (대만) 대만産 IT 부품 증가 예상

- 한국産 IT기기 수출 호조로 대만으로부터의 반도체, LCD 등 수요 증가 예상
 - 태블릿 PC, 노트북용 제품의 수요 지속
- 다만, 제조설비, 기계류 등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

□ (홍콩) 귀금속, 중국 광동성産 전기전자 부품 등 증가 예상

- 세계 10대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3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계무역지인 홍콩을 경유하는 금속과 인근 중국산 부품 등 수입 증가
 - * '13년 1~5월 對홍콩 금은 및 백금 수입액 14.4% 증가

2

아시아 [4.0% 증가] / 대양주 [1.8% 감소]

□ (동남아) 국내 경기 부진에 따른 원자재 수입 수요 둔화되었으나 투자기업의 소비재 등 공산품 수입이 증가 전망

- 세계적인 경기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주요 품목인 천연가스, 석탄, 임산부산물 등의 수입 부진 예상
- (인니) 한국 경기 악화로 천연가스, 유연탄 등 수입 감소
- (베트남) 신발, 의류 등 소비재와 우리진출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모바일 기기 등은 수입 증가
- 다만, 원자재 중에서 원유는 이란産 수입제한과 국내의 꾸준한 수요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□ (서남아) 석유제품 등 원부자재 수입 수요 둔화 지속

- (인도) 전체 수입의 54.6%(12년 기준)가 넘는 석유제품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인도 기업들도 루피화 가치하락을 활용해 수출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
- (방글라데시) 우리나라의 對최빈개도국(LDC) 특혜관세 확대로 수입 증가 전망

* '13년 1~5월 對방글라데시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8.7% 증가

□ (대양주) 철강, 조선 등 부진에 따른 관련 원자재 수입 감소

- (호주) 철광, 동광, 유연탄 등 주요 수입품목의 수입 감소, 다만 육류, 천연가스 등은 수입 증가 예상
- (뉴질랜드) 지진 여파에서 벗어나고 최근 뉴질랜드 달러화의 약세로 목재류, 축산가공품 등 수입 수요 확대

3 유럽 [10.0% 증가]

□ 한-EU FTA 발효 효과로 수입수요 지속

- 원유, 對EU 수입 1위 수입품목으로 등극
 - 한-EU FTA 발효, 이란 리스크로 북해산 원유 수입이 큰 폭 증가
 - * 對EU 원유 수입액(억 달러) : '10) 0.0 → '11) 3.4 → '12) 28.1 → '13.1~5) 17.2
 - * 총 원유 수입에서 EU產 비중(%) : '10) 0.0 → '11) 0.3 → '12) 2.6 → '13.1~5) 4.1
- 기존 주력 수입품인 자동차, 원동기 및 펌프 등도 증가세 지속
 - 특히 수입비중은 낮지만 불황에도 인기인 가방, 의류 등 고급 소비재 수입은 확대
 - * 명품류 수입액(1~5월, MPI 3단위) : 가방 2.7억달러(10.4%↑), 의류 1.8억달러(8.2↑)

4 북미 [2.7% 증가] * 미국, 캐나다

□ (미국) '12년 하반기 기저효과로 수입수요 증가 예상

- 국내경기 둔화로 원부자재 및 자본재 수입수요 회복은 제한적이나 '12년 하반기 기저효과(13.1% 감소)로 증가 전망
 - 반도체, 반도체 장비 등 수입수요 하반기에도 부진 예상
 - * 수입액(1~5월, MPI 3단위) : 반도체 12.1% 감소, 반도체제조용 장비 56.5% 감소, 계측제어분석기 10.1% 감소
- (농축산물) 곡실류는 증가하겠으나 육류는 감소 예상
 - '13년 1~5월 곡실류는 30.7% 증가하고 있으나 육류는 11.7% 감소

□ (캐나다) 광물 등 원자재 수입 증가 제한적

- 경기부진으로 인해 석탄, 제지원료 등 주요 품목의 수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

5 | 일본 [3.3% 감소]

□ 전체 對日수입은 감소세나 부품소재 등은 수입 증가 예상

- 엔저효과에 따른 가격 경쟁력 강화
 - '13년 하반기에도 엔저 추세가 진행될 경우 일본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다른 일본산 제품으로도 확대 가능
- * 對일 수입 추이(%) : '10년) 30.1 → '11년) 6.3 → '12년) △5.8 → '13년 5월) △6.5

□ 일본의 對韓 투자확대로 일본産 수입 수요 상쇄효과도 발생

- '12년 기준 일본의 對韓 투자는 45.4억 달러로 사상 최대
 - 특히 국내 대기업에 부품소재를 납품하는 투자 증가
 - * TOK, 신에츠 (반도체PR 생산), 일본전기초자 (OLED패널) 등
- '13년에도 이러한 일본기업들의 한국 투자진출이 지속될 경우 對日수입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
6 | 중동 [1.2% 증가] * 북아프리카 제외

□ 원유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천연가스 수입은 확대 예상

- 이란, 시리아 등 정세불안으로 원유, LPG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, 천연가스는 수요 증가로 수입 증가
 - 글로벌 경기 침체로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주요 산유국들도 원유 생산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
 - * 사우디는 日원유생산량을 '12년 990만 배럴까지 증산했으나 '13년 940만~950만 배럴로 감산
 - * '13년 1~5월 對중동 원유 수입량은 14.7% 감소, LPG 수입도 11.3% 감소, 천연가스는 43.6% 증가

7 | 중남미 [3.5% 증가]

□ 중남미産 광물자원의 수입수요 소폭 증가 예상

- 식물성 물질은 증가가 예상되나, 동광, 동제품, 철광 등 주력 수입품은 계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
- 주요 對중남미 수입품의 전체대비 비중('13.1~4월 기준)
 - * 동광(61.9), 아연광(59.5), 식물성물질(34.8), 동제품(30.0), 제지원료(24.6), 철광(21.8) 등
 - * '13년 1~5월 對중남미 수입액은 9.8% 감소

8 | 아프리카 [9.5% 증가]

□ 전체대비 수입비중이 낮아 영향력은 미미

- 천연가스 수입은 증가하나 원유, 철광 등은 감소 할 것으로 예상
- '13년 1~5월 기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수입액은 6.7% 감소

9 | CIS [7.3% 증가]

□ 원유 수입은 확대 예상되나 광물자원 수요 감소

- ESPO(동시베리아 송유관)産 러시아 원유가의 프리미엄 가격하락(US\$4 → US\$1)으로 원유수입 증가 지속 예상
 - * '13년 1~5월 對러시아 원유 수입은 73.4% 증가
-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광물, 금속 수입수요는 하락
 - * '13년 1~5월 對CIS 광물자원 수입 현황 : 알루미늄 △24.7%, 합금철선철 및 고철 △17.6

Global Market Report 13-051

2013년 하반기 지역별
수출입 전망과 시장여건

발행인 | 오영호
편집인 | 배창헌
발행처 | KOTRA
발행일 | 2013년 7월
주소 |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
(우 137-749)
전화 | 02) 3460-7114(대표)
홈페이지 | www.kotra.or.kr
